



오늘의 날씨와 생활

9월 9일 월요일 음 8월 11일 (3월)

기상정보

호리고 비



제주도는 호리고 오후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아침 기온은 24-25°C, 낮 최고 기온은 28-30°C까지 오르겠다. 장기간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해진만큼 붕괴사고와 농경지 침수 피해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Table with 4 columns: 오전, 강수 확률, 제주, 오후. Rows show percentages for various locations like Seongsan, Gosa, and Seokpo.

Table with 2 columns: 해돋이, 달뜨기. Rows show times for sunrise (06:13), sunset (16:04), moonrise (07:47), and moonset (14:03).

Table with 2 columns: 내일, 모레. Rows show weather icons and temperatures (24/30°C, 24/29°C).

Table with 2 columns: 식중독지수, 자외선지수. Rows show risk levels (위험, 보통).

월드뉴스

“日아베, 방위상에 고노 외무상 임명 검토”

한·일 관계 경색 계속될 듯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11일 단행할 개각에서 고노 다로 외무상을 방위상에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산케이신문이 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최근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방침을 밝힌 가운데 한미일 3국의 안전보장 협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고노 외무상을 방위상에 기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노 외무상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두터운 신뢰 관계를 쌓아 왔으며 아베 총리는 그가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계속 시정을 요구한 것을 '의연한 대응'으로 평가한다고 산케이신문은 전했다.

산케이 보도대로 개각하면 고노는 방위상으로 자리를 옮겨 한일 관계



기자들과 만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악화와 관련해 '한국 책임론'을 되풀이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는 최근 각국 언론사에 기고문을 보내 '징용 배상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며 지소미아 종료는 동북아 안보 환경을 오판한 결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직인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은 아베 정권 각료로서는 한국에 대해 비교적 유화적인 입장으로 알려져 있는데 개각을 계기로 방위성이 한층 강경 노선을 택할 가능성이 있다. 개각 이후에도 한일 관계는 경색 국면을 유지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연합뉴스

한리일보 logo and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website, phone, and address.

백록담



진 선희

교육문화체육부장

제주만 그런 게 아니라고 했다. 2년마다 열리지만 내부 사정으로 예정된 해를 건너뛰었던 사례를 들려줬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싶었다. 신입 관광 임명 1년 만에 큰 규모 국제 전시를 치러야 하니 부득불 한해를 실 수 있으려니 했다. 2017년에 이어 트리엔날레처럼 2020년 두 번째 행사를 갖는 제주비엔날레를 말한다.

2019제주비엔날레가 있었다면 이 즈음 개최됐을지 모른다. 대신 내년으로 미뤄진 만큼 이 시기에는 차기 비엔날레 윤곽이 그려질 줄 알았다. 하지만 지난 7월 미술관 홈페이지를

2020제주비엔날레 3년 전 그 때 보듯

통해 2020년 제주비엔날레 사전준비와 행사운영 관련 용역 결과를 공고한 걸 빼면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

어느 정도는 예견됐다. 지난해 8월 전임 관광 임기 만료일 직전에 2019 제주비엔날레 예술감독, 큐레이터 등 전문인력 선발 공고를 냈지만 두달여가 흘러 새 관장이 부임한 10월에 발표된 결과는 예술감독 '적격자 없음', 큐레이터 '지원자 없음'이었다.

공고 당시 예술감독 등이 활동하는 계약 기간을 2018년 말까지로만 명시해 과연 그들이 권한을 갖고 2019 제주비엔날레를 준비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왔고 그같은 우려는 큐레이터 응시자 '전무'로 나타났다. 신입 도립미술관장은 그로부터 한달 뒤쯤 2019년이 아니라 2020년 제2회 제주비엔날레 개최를 검토중이라고 발언했고 올해 1월 이를 공식화했다.

두 번째 제주비엔날레가 눈앞으로 다가왔지만 흔한 홈페이지 하나 없

이 2017제주비엔날레 정보에 머물러 있다. 1년이란 시간을 벌었지만 준비 상황은 더더 보인다. 졸지에 짝수 해 비엔날레로 바뀌면서 광주비엔날레, 부산비엔날레와 비교되는 현실인데 2020년 제주와 같은 해에 펼쳐지는 두 비엔날레는 이미 예술감독, 전시 감독을 선발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제주비엔날레는 예술감독 '적격자 없음' 결정 이후 1년 가까이 지났지만 지금껏 그 자리를 맡을 인물의 면면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지난 5월 제주도의원 발의로 제주비엔날레의 효과적인 사업 추진과 운영을 목적으로 제주비엔날레 자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조례가 만들어졌지만 정작 비엔날레를 끌어갈 전문인력 배치는 뒷전인 모양새다.

2016년 급작스레 등장한 첫 제주비엔날레를 보듯 기시감이 드는 건 왜일까. 2년에 한 번이지만 연중 가

동되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으면 이번 역시 전람회 막은 오르겠지만 역량이 축적되지 못한 채 다시 가쁜 숨을 쉬며 다음을 기약해야 할지 모른다. 공모직으로 주체 측인 도립 미술관장이 몇 년마다 교체되는 터에 상설 조직이 없을 경우 매년 불안전체로 비엔날레를 꾸려갈 수 밖에 없다.

제주에는 비엔날레가 생기기 전 제주미술협회가 주축이 된 제주미술제, 제주4·3을 집요하게 다뤘은 탐라미술협회의 4·3미술제가 있었다. 비엔날레 규모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근래 창작자들이 주목하는 현장인 '제주'를 지역 작가들이 20년 넘게 붙들고 작업하며 그 결과물을 관람객들과 공유해왔다. 제주도가 사업비 전액을 투입하는 비엔날레가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도 못주고 심수역 예산만 쓰고 말아서야 되나 싶다.

열린마당

농업인을 배려하는 작은 실천



강 성 민

제주도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

점점수심(蠶繭愁心)이란 사자성이 어 요즘 농업인들의 마음을 대표하는 단어가 아닌가 싶다. 농촌에는 젊은 농업인이 줄어들고 한평생 농사만 짓다가 은퇴해 노후를 즐겨야 할 고령농업인들이 농업현장을 지키고 있다.

2018년 제주도 농기계 보유 통계 자료에는 경운기 1만4464대, 관리기 9116대, 트랙터 4945대로, 도내 농업가구수인 3만1208가구로 단순 환산할 경우 보유비율은 경운기 46%, 관리기 29%, 트랙터 16% 수준이다.

물론 지역마다 주산작목이 달라 단순계산식으로 비교 할 수는 없으나 도내 경작면적이 1ha 미만인 가구가 68%인 걸 감안하면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에

서는 2008년부터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해 매년 7000여 명의 농업인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농기계를 임대해 작기에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임대한 농기계를 작업에 마친 농가가 환하게 웃을 때마다 농기계 임대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로서 늘 자긍심을 갖는다.

그런 7월부터는 임대농기계 면세유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가 간소화 됐다. 이전에는 농업경영체 등록과 농기계를 소유해야만 면세유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었으나 지금은 농업경영체 등록만 되어 있어도 면세유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먼저 면세유카드가 없는 농업인은 지역농협을 방문해 발급 받고 농기계 임대신청을 하고 나서 해당 임대사업소를 방문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다. 농기계를 수령한 후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지역농협을 방문해 면세유를 배정 받아 지정 주유소에서 구입, 활용하면 된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농기계 소유가 어려운 소규모 농업인, 여성농업인, 귀농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추석 저녁 고근산 달맞이 행사에 놀러오십써



강 현 수

서귀포시 대륜동장

늘 바쁘게 살다가도 추석과 설 명절이 다가올 때면 부쩍 아버지의 빈자리가 느껴진다. 온 가족이 밥상에 둘러앉아도 여전히 비어있는 한 자리가 남아있다.

대륜동에는 정상에 원형 분화구를 갖고 있는 오름이 하나 있다. 날씨 좋은 날에는 396m 오름 정상에 서면 마라도에서 지귀도까지 아름다운 풍광을 한눈에 볼 수 있고, 여수 밤바다 보다 더 아름다운 서귀포 칠십리 밤바다를 감상하기에 딱 좋은 장소에 위치하고 싶은 곳이 바로 서호마을에 위치한 고근산이다.

고근산에서는 매년 설과 추서에 특별한 행사가 열린다. 이번 추석날 저녁에는 '제13회 서호 고근산 달맞이 행사'가 오름 정상에 펼쳐질 예

정이다. 서호마을청년회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이번 달맞이 행사는 추석날 오후 4시부터 손님을 맞이하기 시작해 민속놀이, 연날리기, 오름 썰매타기, 경품추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전개된다.

아마도 이날 달맞이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소원풍선 띄우기'가 될 것 같다. 고근산 정상에서 우리를 머리 위에 떠오른 달을 보면서 가족과 연인과 함께 둥근 풍선에 소원을 적어 달에게 보내는 시간... 만약 이 감성 충만한 시간에 프리포즈를 한다면 어떨까?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만 해도 설레는 일이다.

이제 추석이 며칠 남지 않았다. 내 주위에 어려운 이웃은 없었는지 한번쯤 살펴 보고, 살아계신 부모님이 불편한 곳은 없는지 챙겨 보면서, 더불어 추석날 저녁에는 가족의 손을 잡고 고근산 달맞이 행사에 꼭 놀러오시라. 행사장까지 올라가면서 그동안 소개해주고 싶은 곳이 바로 서호마을에 위치한 고근산이다. 고근산에서는 매년 설과 추서에 특별한 행사가 열린다. 이번 추석날 저녁에는 '제13회 서호 고근산 달맞이 행사'가 오름 정상에 펼쳐질 예

Advertisement for 'Angbaechu Broccoli' (양배추 브로콜리) with details on products, price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Gombang Gyeongju University.

Advertisement for 'Bangsu' (방수) waterproofing services, listing various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tasks.

Advertisement for 'Gen Tec Parasol' (Gen Tec 파라솔) featuring high-quality, durable umbrellas in various sizes.